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권은 유권자에게 있음을 환기하고 싶다.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 여부는 후보자끼리의 타협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토론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원하는 토론에 몸을 빼는 후보가 있다면 차라리 안목과 리더십을 길러 다음에 출마하라고 권하고 싶다.“

- 케빈리 한국토론대학 교수 -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발족

한국토론대학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을 운영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는 유권자 국민이 대통령 후보의 됴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낮습니다. 해서 토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토론대학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볼 예정입니다.

첫째, 토론회를 기획 준비하는 주최 측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다면 TV 토론회는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토론 형식이 후보자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는가를 평가하겠습니다.

둘째, 실제 토론회가 진행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자의 역할도 평가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공정한 입장으로, 대통령 후보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토론회의 마무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주요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평가가 과연 균형 잡힌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이 만난 실제 유권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에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라고 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과연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 기획되고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가?>를 토론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활동을 통해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서는 이번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평가하는 한국토론대학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케빈리 교수, 허향숙 부교수, 손은영 부교수, 최인자 부교수, 이은주 전문코치

I. 평가의 대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정치 부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시 :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10:00

진행 : 편상욱 SBS 앵커

II. 평가

■ **총평** : <安心을 잡아야 安心 : 캐스팅보트 안철수, 단일화 불씨 윤석열, 다당제 러브콜 이재명, 송곳일침 심상정>

- 지난 1차 법정 토론에 비해 훨씬 차분해진 토론회.
- 정치, 외교, 안보라는 전문 분야에서 각 후보의 준비 정도를 잘 엿볼 수 있었던 토론회.
- 여전히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 답변을 피하는 태도 등의 장면 연출.
- 윤석열 후보 - 안철수 후보 단일화 불씨에, 다당제 연합 카드를 들고나온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맞선 토론회. 이 과정에서 좀더 토론회가 부드러워짐.
- 정치초년생으로서의 윤석열 후보의 토론 전략 부재가 심각해진 토론회.
- 우크라이나 등 긴박한 사태전개를 감안하면 기대보다는 긴장도가 떨어졌던 토론회.

※ 개선 포인트

- 질문과 답변이 정확해야 함.
- 토론회 순서별로 어울리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
- 토론을 통해 각 후보자의 입장차가 좀더 분명히 드러나야 함.

1. 토론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 후보별 한마디 총평

- 이재명 : 일신우일신 (가면 갈수록 여유)
- 윤석열 : 초지일관 (대장동 논란에 집중) 또는 대략난감 (답변의 구체성 필요)
- 심상정 : 송곳일침 (할 말은 확실하게)
- 안철수 : 박학다식 (확실한 개념정리)

1-1. 이재명 후보

총평 : 지난 1차 법정토론의 거센 대응보다는 여유있는 대응으로 토론회 분위기를 차분하게 이끄는 데 기여.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단일화 불씨에 대해 다당제 연합이라는 카드로 대응. 정치 개혁에

서는 현실 인정과 개혁 의지 천명. 외교 안보에서 전쟁의 피해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

- 형식적 측면에서는 토론 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음. 대장동 이슈 언급 때만 다소 거센 반응. 여유있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토론. 심지어 몇몇 대목에서는 웃는 모습 연출.
- 내용적 측면에서는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약속함.
- 권력구조개편,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등 전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와의 공감대 모색. 윤석열 후보 고립 시도. 단일화 불씨에 다당제 연합 카드로 대응.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교 안보에서 윤석열 후보의 확실한 억지력과 선제타격의지를 통한 평화 보장 논리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외교의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 극명한 사례로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온다고 주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유린하는 것은 맹렬히 비난,
- 집요한 대장동 공세에 대해 간단히 대응. 국면전환을 통해 국내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에 대한 본인의 의지 재천명.
- 여전히 입장대비를 통한 본인의 입장 부각이라는 토론의 목표에는 미흡. 아직은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정도.

※ 개선 포인트

- 토론은 청중과 심판에게 의견차이를 드러내 보여주며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

1-2. 윤석열 후보

총평 : 불필요한 비언어적 표현 개선됨. 다만,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이슈에 집중하는 모양새. 긴박한 국제 정세와 오늘 주제를 감안할 때, 통찰력 있는 외교·안보관을 드러냈어야 함.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토론의 형식적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
-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 이슈를 거론할 때 고압적인 검사 이미지 연출 (연단 양 끝을 두 손으로 짚고 훈계조로 발언) 및 시간 배분 미흡.
-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질문 아닌 질문.
- 이전에는 없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잘못 들었다.” “질문의 요점만 다시 말해 달라.”)이 드러남.
- 이전처럼 회피하는 듯한 인상 (“왜 저한테 물어보냐?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라.” “이미 많이 답했다. 그 질문에 시간을 더 쓰기가 싫다.”) 반복.
- 토론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략검토와 구체성 강화 필요.
-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만큼 외교·안보·남북관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데 대장동 이슈에 집중함. 토론 전략 재검토 필요.
- 정치외교안보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선 자기 공약의 목표와 세부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구체성 강화 필요성.
- ‘주한미군을 대만해협으로 빼는 문제’에 대한 안철수 후보 질문, 경제 안보, 식량 안보에 관한 이

재명 후보의 질문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개선 포인트

- 이전과 비교했을 때 스피치 자세나 내용은 계속 개선되고 있음.
-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안정적 스피치 요망 (좌우 고갯짓 지양, 정면 보고 말하기.)
- 답변의 구체성을 높여야 함.
- 대장동 일변도의 전략 재고 필요성.

1-3. 심상정 후보

총평 : 권력 구조 개편과 남북 관계 및 외교 안보 분야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드러나는 토론이었음. 앞의 3차례 토론에서 보여준 날 선 비판 모습이 다소 누그러짐. 다른 후보들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져 대통령 후보로서의 당당함이 줄어들음.

-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 발언시간 준수, 순서 준수, 시선처리, 표정 자연스러움.
- 앞의 3번의 토론에서 보여준 다른 후보들에게 날선 비판 모습보다 다소 협업하는 구도를 유도하려 노력. 토론이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기여.
- 내용적 측면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당으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실행을 촉구함으로써 순발력을 과시.
- 대통령, 여당과 야당의 현 정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토론.
- 정치체제에서 양당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당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효과적으로 어필. 또한 20년간 군소정당을 유지하는 자신의 정당에 대한 소신을 설득력있게 피력.
- 다른 후보들이 언급하지 않은 군사병 처우 문제, 여군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 소상히 발언함으로써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상.
-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경험과 지식이 드러나는 토론이었으나 존재감은 역시 발휘되지 못한 토론.

※ 개선 포인트

- 마지막 발언 등 결정적인 발언에서 가끔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임. 좀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임.
- 자신의 공약을 부각하고, 여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토론 방식의 연구가 필요.

1-4. 안철수 후보

총평 :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성장.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설명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질문을 함. 재반론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부각. 헤어스타일, 분장이 자연스러워졌으나, 조금 피곤해 보임. 잦은 비주얼 자료 활용.

- 시간 준수, 순서 준수, 경청하는 태도, 질문 후 상대의 답변 경청하는 태도 등 형식적 측면에서

는 큰 문제가 없었음.

- 헤어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변함. 하지만 표정은 조금 피곤한 모습.
- 손팻말 사용이 자주 이뤄졌고, 어떤 손팻말은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어 오히려 집중도를 떨어뜨림.
- 내용적 측면에서 상대 후보의 문제점을 설명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시작하는 질문은 다수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 (예를 들면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
-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먼저 끌어내며 자신의 의견인 청와대 개혁 필요를 주장함.
- 단일화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단일화 불씨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동시 공약.
- 정치보복 이슈에 대해 이전의 연금제도 개혁처럼 4후보의 공감을 이끌어냄.

※ 개선 포인트

- 비주얼 자료 활용은 포인트가 있게 준비할 것.
- 잦은 비주얼 자료 사용은 집중도를 떨어뜨릴 위험성.
- 유권자를 위한 설명은 도움이 되나, 다소 길어 긴박감을 상실함, 간결한 질문과 간결한 답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총평 : 무난한 진행. 국민 목소리 성비, 연령대 균형 필요성. 시간 표시 필요성.

- 접근 가능성, 사전 홍보 등에서 문제가 없었음.
- 4명의 토론자를 화면 정면에 스탠딩으로 처리한 것도 무난.
- 사회자를 앞쪽에 배치하여 후보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를 만들.
- 방송 앞부분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취재하여 방송한 것은 유권자 배려 장치로서 좋았음. 하지만, 성비와 연령대에서 균형적이지 않았음.
- 시청자에게 시간 표시가 보이지 않아 여전히 문제. 지난 번보다 문제가 심각.
- 토론회 형식은 공통질문 1분에 이은 시간총량제토론 1 (각 6분, 권력구조 개편), 공통질문 1분에 이은 시간총량제토론 2 (각 6분,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정책), 주도권토론 (각 9분), 마무리 발언 (각 2분 30초)의 순서. 모두 발언을 뺀 이유는?

※ 개선 포인트

- 국민 인터뷰를 좀더 균형적으로 편성할 필요.
- 시청자도 알 수 있는 시간 표시 필요성.
- 토론회 형식에서 모두 발언이 빠진 이유가 모호.

3. 사회자 평가

총평 : 무난했으나 몇몇 대목에서 가우뉘.

- 모두 발언 순서가 없었음. 원래 합의된 바?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주한미군이 동원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질문에 두 차례 개입하여 심상정 후보에게 발언기회를 줌. 부적절한 개입.
- 시간 남는다고 마무리 발언을 1분에서 2분 30초로 늘린다고 했음. 사회자가 대통령 후보 법정 토론의 시간 배분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됨.

※ 개선 포인트

- 사회자가 토론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오해를 사서는 안됨.
- 대통령 후보 법정 토론의 시간 배분을 사회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됨.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기준

(2022년 월 일 시 분 ~ 시 분)

1. 토론 개개인에 대한 평가

	후보자A	후보자B	후보자C	후보자D	후보자E
<내용적 측면>					
각 순서에 어울리는 적절한 내용					
- 모두 발언					
- 질의 응답					
- 정리 발언					
쟁점에 대한 이해					
감정 조절					
<형식적 측면>					
시간 준수 포함 각종 규정 준수					
상대방 발언 시 경청 및 메모					
적극적 참여 여부					
적절한 시선 처리					
원고 의존도					
간결한 화법					
속도, 성량, 발음, 성조					
단정한 용모 (옷차림 등)					
적절한 제스처					
상대방, 사회자, 청중에 대한 태도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개최기관 / 장소	/		
사회자명 / 사회자 평가	/		
토론회장 설비			
TV 화면 구성			
토론회 방영 시간	2022년	월	일
토론자 간 실제 토론 시간	총	분	
사전 의제수집과 선정			
토론회 진행방식 확정 및 고지			
유권자 참여 (질문 접수)			

3. 사회자 평가

사회자의 진행 (개입 정도)	
토론회 진행 방식 (의제와 순서)	
쟁점 부각	
양자 토론 유도	
질문 및 답변 시간의 제한	
실시간 유권자 참여	

4. 사후 평가

4-1 기존 미디어의 토론회 평가에 대한 한국토론대학의 평가

	미디어 1	미디어 2	미디어 3	미디어 4	미디어 5
토론회 평가 보도					

4-2 한국토론대학이 조사한 유권자의 토론회 평가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3	
유권자 4	



한국토론대학 소개

1. 한국토론대학은?

한국 토론 교육을 개척해 온 케빈 리 교수가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대안 교육 기관입니다. 1년 과정의 <토론 전문가 과정>과, 3년 과정의 <인문학 디베이트 100권 과정>이 메인 콘텐츠입니다. 참고로, <토론 전문가 과정>은 현재 22기까지 진행 중입니다.

2. 케빈 리 교수는?

미국에서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0년 한국에 돌아와 토론 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는 토론 교육 전문가입니다. 주요 저서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다, 디베이트>, <논리학 사용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30세 이후 중국, 캐나다,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이경훈입니다.

3.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은?

한국토론대학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 토론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평가의 틀이 없음을 발견, 그 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의 부교수진과 전문코치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연락처는?

홈페이지 : www.한국토론대학.org

카페 : cafe.naver.com/togetherdebateclub

이메일 : usaedunews@hotmail.com

전화 : 케빈리 교수 010-2256-3013